# "잘못된 관행·문제점 등 시정해야…"

#### 시흥시의회,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

(시후타인즈=우동와 기자) 경기 시흥시의회(의장 윤태학)는 17일 상 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마쳤다.

지난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

식시되 이번 간사에서는 2016년도 진 행한 민생관련 업무에 대한 능률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

10거의 사무 대상에 대하 간사록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는 우리시 인

사분야, 사회복지분야, 평생교육분 야. 동물보호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.

특히 동물보호 운영전반에 있어 '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나 소유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"고 지적하며 "동물보호 관련 전담인력 배치 및 동물보호센터 설치 검토"를

련해서는 "교육중심이 아닌 과내 교 육기관들의 거점 및 컨트롤타워 역할 윽 해야하다"고 지전했다

또한 신천푸드마켓, 정왕푸드뱅크 에 있어서는 "기부자들에게 만족감 고취 및 또 다른 기부행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방식 을 개선해 줄 것"을 주문했다.

과녹지 주차장 조성계획과 과려해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안을 지구딘 외계회 의제에서 제인하 저은 해당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"이라고 지적하며 '해당 주차장 조성안을 지구단위계 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 성해 줄 것"을 요구하고, 목감동 한 양수자이아파트 건설로 이하 학교 주변 교통문제 현황 등에 대해서는 "주변의 교통 혼잡과 등교하는 어 리이들의 교통아저이 위형반는 무 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" "대안으로 제시하 부출입구 신호등 개설 추진"을 주문했다.

시흥시 도로계획 및 집행현황과 관 련해서는 "10년 이상 경과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우선순위를 객 과적 기준에 따라 정해 신속하게 추 진할 것"을 주문하며 "도로개설사업 과려예사을 당초 예사퍼성액 수준보 다 상향조정하여 편성할 것"을 요구 행다

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, 최 종의결할 예정이다.

## "아파트 들어서는데 도로는 그대로…"

###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, 논곡동 건설 아파트 인접도로 건설 지연 질타

(시흥타임즈=우동완 기자) 시흥시 가 논곡동에 건설 중인 A아파트의 사 업승인을 내주면서 교통량 증기에 따 르 이전도로의 시석을 요구한 수 있 었음에도 사업자측의 의견만 반영해 도로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시흥시 의회가 지적했다

14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 회에 따르면 시흥시 논곡동 160-59 번지 일워에 건설 중인 A아파트는 지난 2012년 9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 신청이 있은 이후 2013년 12월 D사가 사업 승인을 득해 2014년 7월 착공에 들

오는 11월 입주를 목표로 536세대 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단지는 1단 지와(536세대), 2단지(116세대)로 나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격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세대수가 많은 다지근 여겨되는 도근(주9-00중서) 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 대아이로 분이었는 2단지와 이전 한 도로(중3-79)를 추가로 신설토록 했다.

그러나 사업시행자는 "시가 요구



하는 신설도로가 1단지와 떨어져 있 어 교통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"며 '수인산업도로(국도42호)로 연결되 는 다른 축임구를 확보해 보축인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"고 주장 했

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"1다지의 주출입구가 되는 도로에 차 량진출입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 며 "2단지와 인접한 도로는 2단지의 사업시행 시 개설하라"는 조건으로

심의를 의결했다

하지만 이미 건축되고 있는 1다지 와 달리 도로 개설 조건이 붙은 2단지 의 사업시행자가 언제 사업을 시행할 지 모르는 상황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아이던 신설 도로는 기약 없 이 늦어지는 상황이다.

이를 두고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.

조원희 시의원은 "1단지 아파트의

세대수가 2단지 보다 3배이상 많은데 (도로를 신설했다면)1단지 아파트 주민이 이름 이용한 환료이 더 많은 기라며 "왜 1단지 사업자의 의견 을 그대로 받아들였냐"고 지적했다.

그러면서 "당시 1단지 사업자는 (도로개석비용옥) 부단학 생간이 없 다고 답변한 것 아니냐"며 "2단지 사 업자는 1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이걸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 고 1, 2단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 했다.

또 김영철 시의원 역시 "536세대와 116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 비용 을 부담함 것이지 모호하게 정리 되 면서 1단지 사업자는 책임에서 완전 히 빠져나온 상황으로 추호(다른 방 향 도로에) 신호등을 세우고 하는 것 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' 고 말했다.

이와 과려해 시 과계자는 "2단지 시행 시 사업자가 개설하도록 조건부 로 심의 되었으나 현재 2단지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(1단지에서) 국도 42호서에 진전 지축인이 가능하도록 안전(신호체계 등을 확보해)하게 진 행하겠다"고 단변했다.

후 의워은 "시 지연여거상 시처 모 감·정왕푸드뱅크의 통합이 어려운 점 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호 경쟁적이 계속에서 기부자들의 어려움 등도 존 재하는 만큼 시 푸드마켓 밴크를 총괄 할 수 있는 한 기관에서 통합·운영하여 후워물품 등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되고 상호 간 연계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"을 이야기했다. 이 와 함께 신천푸드마켓, 정왕푸드뱅크 에서 판매된 물품의 수입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지출계좌와 별도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 판매수입의 납 인방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서되 도록 지도 · 점검해 나갈 것도 주문했다.

### "시의회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"

#### 성인문해센터 현장방문 중 센터장과 언성 높여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중단 후 재개

(시흥타임즈=홍성인 기자) "시의 원에 막말하는 센터장의 모습, 의회

시후시의히 자치핸정의워히가 핸 정사무감사 도중 전날 있었던 불미스 러우 사건을 거론하며 갑사 지행을

14일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 무감사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 도중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은 감사를 시 작하기 전, 전날(13일) 성인문해교 육센터에서 벌어진 일을 거론하며 불 쾌각을 노출했다.

김태경 위원장은 "행정사무감사 기가 중 현장방문은 말 그대로 피각 기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일이 체단기과과의 가단히 자리가 아니 다"라면서 "어떻게 센터장이라는 사 람이 발언권을 요청하고, 의원들에 막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 다"고 밝혔다.

이와 같은 발언은 성인문해교육센 터 방무 도중 센터장이 발언권을 요 청하고,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자 고 성과 막말이 오간 것을 두고 한 것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"라며 "적절 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"이라고 강 조해다.

이어서 장재철 시의원은 "이번 사 아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"라며 해당 센터장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 하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"고 주장했다.

장 의원이 감사 진행 중단을 요청 하자,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의를 하 고 11시 20분경 감사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 40분경 재개됐다.

하편. 시의회는 감사보고서를 통 해 해당 센터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.

### "전문성 결여된 인사…시민들 피해 우려"

#### 시흥시의회, 전문직렬 고려치 않는 인사행정 질타

"최근 인사정책이 전문직렬 고려 하지 않고 있어. 의사격정이 지여되 는 등 행정의 융통성이 떨어지고 있 다." 잠재철 시흥시의회 의원이 제 235회 제1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김 사를 통해 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

장 의원은 "시 진행보가 진력파괴 라는 명분 아래 직원들의 보직을 시로 바꿔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"이라고 밝혔다

그는 "세무직, 기술직 등은 직렬과 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문 보직 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맞다"면서 "향후 인사정책에 있 어서 전문지식과 업무숙련을 요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경험이 있거나 그 직렬에 맞는 인시 가 단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"이리 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자치핸정의워히에서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감사결과보고서



를 통해 "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과 련해서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는 업무 특성상 현재 공개선발을 통해 채용된 젊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 서 청년실업해소와 경력단절여성의 배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니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선발방식을 검 토해 줄 것"을 요청하기도 했다

아울러, 타시·군과 단순 비교해도

시흥시 공무워 1이당 주민수가 원등 히 높은 반면 행정자치부에 인원충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구성해 부 공적 서비스가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그 잔여 직원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과중에 따른 대안 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

#### "푸드뱅크 내실 있는 운영 필요해" 홍원상 시의원, 관내 푸드뱅크 운영 문제점 지적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여 집행되도

시흥시에서 운영되는 푸드뱅크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전이 나와다 제235회 제1차 정례회기 중 행정시

무각시에서 시의회는 푸드뱅크의 운 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했다. 호워사 시의워은 "정왕푸드배ㅋ는

매녀 일정부분 자부닥을 확보하여 시

업을 운영하지만 신천푸드마켓의 경 우 자부담이 없거나 극히 일부분만을 바열하고 있다"면서 "의정부분 자투 담을 확보해야 그 사업에 더 많은 관 심을 갖고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 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이어서 "담당부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시 일정부분 자부담 비율을 확보

록 해 주길 바란다"고 덧붙였다.

이어서 신천푸드마켓 명의의 '고 유번호증'이 있는 상태에서 회계지 출 및 입・출금 계좌는 모두 신천푸드 마케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진원득 의 4대 보험, 전기요금·전화요금 등 의 고지서 상 명의가 (사)복지세상미 래로 되어 있어 혼선이 야기된다고 전하며,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 하기도 했다.

